

9th Indo-Pacific Fish Conference Review

곽우석*

국립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연구소

By *Woo-Seok Gwak**

College of Marine Science, The Institute of Marine Indust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ngyeong 650-160, Korea

ABSTRACT The 9th Indo-Pacific Fish Conference (IPFC9) was held in Okinawa, Japan from 24th to 28th June 2013. Five hundred and thirty two delegates from 36 countries/regions around the world attended. The Conference took place with a welcome address by Dr. Keiichi Matsuura in the Laguna Garden Hotel next to the Okinawa Convention Center in the evening of 23rd June 2013, one day before the official start of the IPFC9. The winners of the two IPFC9 Bleeker Awards, Jeffrey M. Leis (Ecology) and Gerald R. Allen (Systematics) provided excellent talks on “Change in the early life-history of Indo-Pacific Fishes” and “The center of Indo-Pacific reef fish diversity”. A total of 462 papers were presented, including 328 oral and 134 poster presentations. The main themes of IPFC9 included systematics, evolution, zoogeography and phylogeography, biodiversity, ecology, behavior, and conservation. There were 14 symposia, which included topics such as “Top predatory fish in the Indo-Pacific ecosystems”, “Fish diversity across environmental extremes”, “Ontogeny and systematics of Indo-Pacific fishes”, and “Phylogenetics and diversification of the Percomorpha”. IPFC10 will be held in Papeete, Tahiti.

Key words : Indo-Pacific, Fish Conference

전 세계 어류 연구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9회 인도태평양어류학회가 2013년 6월 24일부터 5일간 일본 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어류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와 연구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학회 분위기 등에 대해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한국어류학회 회원분들을 위해 한국어류학회지 지면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학회에는 36개국에서 532명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구두 발표 328개와 포스터 발표 134개를 합쳐 총 46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참가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 호주, 미국,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는 19명이 참가하였다.

인도태평양어류학회의 연혁을 잠시 살펴보면, 1981년 호주 Sydney에서 처음개최되었고 인도양 및 태평양을 비롯

한 전 세계 해양에 분포하는 어류의 계통, 분류, 진화, 생태, 행동, 생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국제학회로 4년에 한 번 각 지역에서 개최된다. 역대 학회 개최지는 다음과 같고 일본은 제2회 개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두 번 개최 하게 되었다.

- IPFC 1 : Sydney, Australia (1981)
- IPFC 2 : Tokyo, Japan (1985)
- IPFC 3 : Wellington, New Zealand (1989)
- IPFC 4 : Bangkok, Thailand (1993)
- IPFC 5 : Noumea, New Caledonia (1997)
- IPFC 6 : Durban, South Africa (2001)
- IPFC 7 : Taipei, Taiwan (2005)
- IPFC 8 : Perth, Australia (2008)
- IPFC 9 : Okinawa, Japan (2013)

*Corresponding author: Woo-Seok Gwak Tel: 82-55-640-3102,
Fax: 82-55-642-4509, E-mail: wsgwak@gnu.ac.kr

학회 참석을 위해 6월 23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 나하(那覇)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필자는 일본에서 유학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생활한 경험이 있지만, 오키나와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어류 관련 국제학회 참석이라는 것 외에도 평소에 궁금해 하던 곳을 간다는 마음에 상당히 들떠 있었다. 나하국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6월인 데도 불구하고 작렬하는 태양빛과 습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마치 열대지방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일본 본토와는 기후 면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는 160개의 섬으로 구성되었고 일본 큐슈 남단에서 약 685 km 떨어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와이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에메랄드 빛 바다와 해안선으로도 유명하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지만 1879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점령기를 거쳐 1972년 다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 일본 영토에 편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 섬 안에 설치된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포함한 정치적 문제로 오키나와 현과 일본정부 간에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일본어 발투가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워 구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얼굴 생김새 또한 일본 본토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또한 오키나와 전통 의상인 류장(琉装) 또한 일본의 기모노와 유카타와는 달리 정열적인 태양과 잘 어울리는 화려함을 갖고 있었다. 오키나와 도착 당일인 23일 환영만찬이 Laguna Garden Hotel에서 이번 학회 Organizing Committee 회장인 Keiichi Matsuura 박사의 환영사와 함께 열렸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맥주가 제공되었는데 일본 맥주 하면 흔히 생각나는 브랜드가 아닌 Orion draft beer가 제공되어 의아해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오키나와 전통맥주이고 현지인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맥주라고 하였다.

학회 첫 날인 24일에는 인도태평양어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Dr. Pieter Bleeker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Bleeker Awards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상은 어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05년 Taiwan에서 개최된 7th IPFC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Jeffrey M. Leis와 Gerald R. Allen 박사가 생태학과 계통분류학 분야에서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Dr. Jeffrey M. Leis는 어류 자어 분류와 생태를 연관하여 분류군 별 분포 pattern에 대해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았고 어류 자어는 기존에 알려진 “주변 해류의 흐름에 의해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놀라운 speed와 다양한 sensory ability로 상당한 거리를 유영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Leis and Miller, 1976; Leis, 1983; Leis et al., 2011). 수상기념 강연주제는 “Change in the early life-

history of Indo-Pacific Fishes”였다. Dr. Gerald R. Allen는 Australia-New Guinea의 coral reef fish와 freshwater fish에 대한 새로운 분류군 기재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고 지금까지 456종(324 coral reef fish와 132 freshwater fish)을 기재하였다 (Allen, 1970, 1984, 2004). “The center of Indo-Pacific reef fish diversity.”라는 주제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Matsuura, 2013).

이번 학회의 주제는 Systematic, Evolution, Zoogeography and Phylogeography, Biodiversity, Ecology, Behavior, Conservation으로 세부 Session title은 다음과 같다.

Session

Systematics / Distribution
 Deep-sea Fishes / Gobies
 Distribution / Zoogeography
 Gobies / Reproductive biology / Taxonomy
 Zoogeography
 Taxonomy
 Zoogeography / Molecular Phylogeny
 Chondrichthyes / Behavioral Ecology
 Molecular Phylogeny / Fishery Biology
 Coral Reef Fishes
 Taxonomy / Morphology
 Behavioral Ecology
 Fishery Biology / Life History
 Population Ecology
 Morphology / Behavioral Ecology
 Genetics
 Life History / Behavioral Ecology
 Climate Change

Symposium

Oceanic Islands
 Fish Communities
 Behavioral Ecology
 Chondrichthyes
 Oceanic Islands
 Fish Communities
 Behavioral Ecology
 Percomorpha
 Chondrichthyes
 Environmental Extremes
 Ontogeny and Systematics
 Environmental Extremes / Genetics
 Genes to Genomes
 Top Predatory Fish

총 18개 Session과 14개의 Symposium으로 나뉘어져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눈에 띄는 것은 Taxonomy의 경우 이틀에 걸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고 Review 성격의 발표도 수 건 있어서 정통 어류학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서식처에 살고 있는 어류의 분포, 생리, 생태학적 연구결과와 함께 DNA 분석방법을 적용한 어류 분류, 생태 그리고 집단분류에 관한 발표는 최근의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Coral reef session에서는 Scuba Diving을 통한 어류상 및 생태 조사결과가 몇 편 소개되었는데 국내에도 최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Scuba Diving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어류학회에서도 봄 학회에 특별 Session을 만들어 Scuba Diving 동호인과 같이 어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또 다른 인상적이었던 것은 Climate change session으로 비록 단 4편의 연구결과만이 발표되었으나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관심거리이고 주목해야 할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되었다(Matsuura, 2013). 학회 홈페이지 (<http://www.fish-isj.jp/9ipfc/>)를 통해 연구발표의 요지와 발표파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번 학회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9th IPFC 준비위원회가 학회 개최 1년 전부터 학회 홈페이지를 open하여 준비하였으나 이전에 개최된 학회에 비해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제10회 인도태평양어류학회는 2017년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Tahiti의 CRIOBE (<http://www.criobe.pf/>)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Tahiti는 인구 13만 명에 1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고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 폴 고갱이 무척이나 사랑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CRIOBE는 프랑스령 Polynesia의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기초 및 응용연구 그리고 교육과 internship과정을 통한 훈련 등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연구분야에서는 Polynesian coral과 어류 군집을 포함한 Coral 생태계에 대해 Scuba Diving을 통해 monitor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4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한국어류학회에서 8년 후 “IPFC11” 개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2021년 IPFC11을 개최할 개최국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눈길을 끈다.

인 용 문 헌

- Allen, G.R. 1970. Two new species of frogfishes (Antennariidae) from Easter Island. *Pacific Science*, 24: 517-522.
- Allen, G.R. 1984. A new genus and species of anthiid fish from Papua New Guinea. *Rev. fr. Aquariol.*, 11: 47-50.
- Allen, G.R. 2004. *Pomacentrus aurifrons*, a new species of damselfish (Pomacentridae) from Melanesia. *Zootaxa*, 399: 1-7.
- Matsuura, K. 2013. 9th Indo-Pacific Fish Conference. In: Abstracts of 9th Indo-Pacific Fish Conference, Okinawa Japan, Jun. 23-28 2013, 252pp.
- Leis, J.M. and J.M. Miller. 1976. Offshore distributional patterns of Hawaiian fish larvae. *Mar. Biol.*, 36: 359-367.
- Leis, J.M. 1983. Coral reef fish larvae (Labridae) in the East Pacific Barrier. *Copeia*, 1983: 826-828.
- Leis, J.M., A. Hay and M. Gaither. 2011. Swimming ability and its rapid decrease at settlement in wrasse larvae (Teleostei: Labridae). *Mar. Biol.*, 158: 1239-1246.